난소난관 농양 환자에서 내과적 치료에 따른 초음파 소견의 변화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
안은희 · 조재성 · 임종철 · 박용원

● 목적

난소난관 농양은 초음파 검사 상 다양한 에코 양상의 종괴로 관찰되므로 유피 낭종, 자궁내막종, 혹은 악성 난소종양과 감별진단을 요한다. 골반염 증상을 동반한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 상 난소난관의 농양이 의심되는 경우, 임상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도하여 경과에 따른 초음파 소견의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기로 한다.

● 연구 대상 및 방법

1999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골반염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부속기의 종괴가 관찰되고, 그 소견이 난소난관의 농양으로 추정된 73명의 환자 중 수술을 시행한 34명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 후 종괴가 소실된 39명을 대상으로 치료에 따른 초음파 소견의 변화를 조사하였다.

● 결과

73명의 환자 중 선행된 항생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를 포함하여 34명이 수술을 시행하였다. 수술 전 초음파 검사 상 추정 진단은 20명이 난소난관 농양, 양성 난소 종양 6명, 악성 난소 종양 6명, 2명이 자궁 근종이었다. 수술 전 종괴의 크기는 5 cm 이하가 5명, 5 cm에서 10 cm 사이가 27명, 10 cm 이상이 2명이었다.

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39명 중 15명이 양측성이었고, 종괴의 크기는 5 cm 이하가 12명, 5 cm에서 10 cm 사이가 26명, 10 cm 이상이 1명이었다. 항생제 치료개시 5일에서 7일 후에 초음파를 시행한 27명 중 23명이 크기의 감소를 보였으며, 크기의 감소율은 평균 31.4%였다. 종괴의 에코 양상은 고형성 3명, 복합성이지만 고형성이 우세한 경우 8명, 복합성이지만 낭성이 우세한 경우 25명, 낭성 3명이었다. 항생제 치료 후 종괴의 에코 양상의 많은 변화를 보인 경우는 총 8명으로 29.6%에 해당하였다. 또한 복합성이지만 낭성이 우세한 경우의 대부분에서는 낭성의 에코가 무 에코에 가깝게 변화되었다.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 중에 종괴가 모두 소실되는데 평균 약 3달이 소요되었다.

● 결론

난소난관 농양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경우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에 의한 농양 크기의 감소 및 에코양상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한다.